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 또 심의 보류

'개발 계획 변경안' 안전 상정 무산 ... 광양만권자유구역청 "다음 심의 승인엔 10월 예타 영향 없을 것"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심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연륙교 건설의 경제성이나 미래에셋의 투자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경도 개발 계획 변경안'의 안전 상정이 무산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에서 개발 계획 실현 가능성, 경제성이나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 안전 상정이 예상됐지만 결국 미뤄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심의에 이상 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심의는 연륙교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인 만큼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국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당초 6월까지 산자부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추진 과정이 순조로우면

연륙교 건설비는 국가 40%, 전남도와 여수시 40%,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연륙교 건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투자자인 미래에셋 측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다음 심의에서 승인이 나오면 오는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심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개발공사 등은 여수 신월동-야도-대정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도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이 연륙교는 연장 1.52km, 폭

13.8m, 아치교·사장교(860m)로 총 사업비 1154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1989년 고시된 여수시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광 효과·재난 대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여수시 입장이 반영됐다. 장기적으로는 신월동-경도-돌산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익산 쌍릉에서 발굴된 인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3D복제뼈(왼쪽부터)와 실제 발굴뼈가 전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원들이 익산 쌍릉 대왕릉 석실의 벽면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 쌍릉 대왕릉 주인공은 백제 무왕?

부여문화재연구소 "60대 전후 키 161cm~170cm 남성"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대왕릉에 묻힌 주인공이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커졌다. 익산 쌍릉은 대왕릉과 180m 떨어진 소왕릉으로 구성된 있는데 백제 무왕과 부인 선화공주가 각각 묻힌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왔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익산 쌍릉 대왕릉 내부에서 지난 4월 출토된 인골함, 복장패·정강뼈 등을 공개하면서 "인골을 다양한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전후 남성의 것으로 보인다. 키는 161cm~170c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세기 조선 시대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61cm인 사실을 고려하면 대왕릉에서 발굴된 남성의 키는 비교적 큰 편이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 '퐁제가 훌륭하고 뜻이 호방하며 기상이 걸출하다'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쌍릉은 백제 시대 말기 왕릉급 무덤이며 규모가 큰 대왕릉을 서동 설화의 주인공인 무왕의 무덤으로 보는 학설

이 유력했다. 이번 인골 분석 결과는 대왕릉 주인을 무왕으로 보는 학설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시, 마한백제문화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실 끝부분에서 여태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인골 조각이 담긴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100년 전 일제가 발굴하면서 다른 유물들은 유출했지만, 인골은 꺼내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 측은 10대나 20대에 즉위한 무왕의 재입 기록으로 추정하면, 무왕의 사망 나이가 쌍릉의 인골 추정 나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 시점이 7세기 초부터 중반 즈음이라는 인골 분석 결과는 같은 시기 왕릉을 확립한 백제 무왕의 무덤이라는 역사적 가능성을 높여준 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목포~부산 1시간대 KTX 건설 급부상

남해안 광역 경제권 형성 기대감 보성~목포 구간 전철화 우선돼야

목포~순천~부산을 오가는 남해안 고속철도(KTX)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성사된다면 목포와 부산을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호남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엇보다 남해안 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당장은 회의적이다. 남해안철도의 전라 구간은 전철도 아닌 단선 일반철로, 이제서야 건설 중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당장 KTX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반철로 건설 중인 공사를 전철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해안 KTX 왜 필요한가

한반도 신경제지대는 전국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다. 이미 동해안 축과 서해안 축은 건설된만큼 남해안철도 건설이 곧 한반도 신경제지대의 완성이다.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췄으며, 조선해양·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집적지이기도 하다. 남해안권역을 시베리아·유럽까지 닿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남해안철도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와 부산을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 연결 등 남해안 광역경제권 구축은 새로운 남북 회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국가 발전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들과는 물론이고 전라도와도 협력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부산-광주-목포 간 KTX 건설 등 남해안 경제권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철화도 안돼 있는데 KTX?

전남지역은 도로·철도·항공 등 SOC(사회간접자본)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문제가 SOC의 영·호남 격차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도 동의할 정도다.

특히 철도의 경우 경상구간은 복선 전철인데 반해 전라구간은 단선 일반철이다. 부산-경남-전남을 오가는데 전라권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철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물류, 조선해운, 해양관광, 신소재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신해양경제 벨트 조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KTX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보성~목포 구간은 단선 일반철로 건설 중인데 그동안 중단됐다가 이제서야 속도를 내고 있다. KTX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중복 투자 문제를 들어 이마저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KTX 건설 논의보다는 현재 건설 중인 단선 일반철로를 전철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3.8조

지급대상 2배·규모 3배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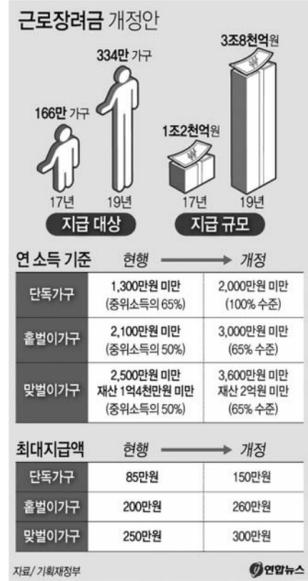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홀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추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